

# '바이오 헬스케어' 미래성장산업으로 키운다

### 김승수 전주시장, 전북대 중재적 메카노바이오 기술융합연구센터 방문·거점시설 점검

전주시가 국내 유일의 중재의료기기 전문 연구개발센터인 전북대학교 중재적 메카노바이오 기술융합연구센터를 중심으로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을 지역 미래 먹거리로 키우는데 공을 들인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26일 3·4등급 중재의료기기 개발과 생산, 평가를 위해 설립된 전국 유일의 전문기관인 전북대학교 내 중재적 메카노바이오 기술융합연구센터를 방문했다.

김 시장의 이번 방문은 전주시가 글로벌 산업생태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신시장 선점을 위해 바이오 소재 핵심원천기술 및 상용화 기술개발에 적극 협력하기 위한 거점시설을 점검하기 위해서였다.

지난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 산업거점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중재적 메카노바이오 기술융합연구센터는 국비 등 총 170억 원이 투입돼 지난해 10월 중재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연구하는 대형 연구센터로 완공됐다.

센터는 현재 스텐트와 카테터 등 몸 밖에서 자기장, 빛, 초음파 등의 기계적인 힘을 이용해 몸 안에 매식된 의료기기를 작동시켜 의사가 원하는 진단과 치료를 향상시키는 기술이 적용된 3·4등급 중재 의료기기를 제조하기 위한 시설 등을 구축 중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26일 3·4등급 중재의료기기 개발과 생산, 평가를 위해 설립된 전국 유일의 전문기관인 전북대학교 내 중재적 메카노바이오 기술융합연구센터를 방문했다.

여기에 시와 전북대학교는 최근 세 포실험과 동물실험 등 사용적합성 평가, 식약청 허가 임상전까지 의료기기 사용허가 전주기 기업지원을 할 수 있는 '메카노바이오 활성소재 혁신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 사업도 따내 국비 100억 원 등 총 215억 원을 투자해 전북대 캠퍼스에 메카노바이오활성소재 기반 의료기기 개발이나 제품화에 필

요한 실증시설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시는 대한민국 혁신중재 의료기기 특화산업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관련 기업 이전과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 등으로 이어져 지역 의료기기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에 한발 앞서 뛰어든 도시들은

있지만 전주만큼 탄탄한 기반을 갖춘 도시는 많지 않다"면서 "중재 의료기기 원천기술 확보와 핵심 메카노바이오 의료소재 개발, 실증 지원까지 연계하는 혁신의료기기 산업 생태계가 구축된 만큼 전북대학교와 함께 힘을 모아 미래성장산업으로 키워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하세요”

### 전주시, 6월 7일~7월 1일 접수... 전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최대 50만원 지원

전주시가 장기화된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카드수수료를 지원한다.

시는 오는 6월 7일부터 7월 1일까지 전년도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매출액의 0.8%를 업체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2022년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전주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우흥업과 도박업, 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신청기한 내에 전주시 누리집(www.jonju.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등

을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접수 초기인 6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맞춰 출력 자료를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서 연매출액과 카드매출액 자료를 제출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지난해부터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국제청을 통해 매출액을 확인·처리하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통해 전주시역 1만3133개 업체에 약 41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김중성 전주시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은 "소상공인의 영입비용 일부인 카드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영부담을 완화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 및 배신소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 '해외비즈니스 출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전주시가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돕는다.

시는 27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비즈니스 출장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추진되지 못했던 지난해와 달리 최근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엔데믹 기조에 따라 기업들의 해외출장 수요가 증가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된 기업들의 요구를 반영해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 항공료만 지원하던 것과는 달리 올해는 통영료를 추가로 지원하는 등 기업당 최대 250만 원을 지원해 실질적 도움을 줄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심사를 거쳐 6월 20일 대상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예산 소진 시까지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선정 업체들은 개별적으로 해외 비즈니스 출장을 다녀온 후 구비서류 제출 시 사업비를 지급받는다.

김중성 전주시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은 "해외비즈니스 출장 지원사업이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수출에 관심이 많은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내 전화(063-281-2068)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개원 30주년, 건강한 성장·발달 '앞장'

### 전주시청소년안전망 활성화 보고대회·개원 30주년 기념 특강 가져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정혜선)는 26일 전주중부비전센터에서 전주시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실무위원회, 1388청소년지원단, 학교지원단 위원, 청소년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전주시청소년안전망 활성화 보고대회 및 개원 30주년 기념 특강'을 했다.

피아노 축하연주로 문을 연 이날 행사는 이현순 (사)전주YWCA회장의 환영사와 김승수 전주시장의 축사, 신규 1388청소년지원단 위촉(총 8개 기관, 개인 11명), 우수 청소년 안전망 유공자 시상식, 30주년 기념 영상 시청 및 30주년 핵심가치 선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1388청소년 지원단(복지지원단) 소속의 공전요리재과재방미용직업전문학교 △전주시청소년안전망 자문기구인 전주완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학교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인 고은경 씨가 각각 전주시장 표창을 받았다.

또한, 위기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과 정기적인 후원 활동으로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구축에 큰 도움을 준 '청운검정고시학원(원장 임정신)'과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위원으로서 연구조사사업과 정책 자문 등 센터 발전을 위해 큰 도움을 준 안경희 전라북도교육 정책연구수 연구위원이 감사패를 받았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립 및 성장을 위해 노력한 박은지·황유나 청소년은 고용노동부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6일 전주중부비전센터에서 전주시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실무위원회, 1388청소년지원단, 학교지원단 위원, 청소년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전주시청소년안전망 활성화 보고대회 및 개원 30주년 기념 특강'을 했다.(사진은 총 8개 기관, 개인 11명 신규 1388청소년지원단 위촉 모습)

전주시청장상을 수상했다. 이어 2부 순서로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개원 30주년 기념특강으로 박태원 주임교수(전북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코로나시대, 정신건강과 마음챙김'을 주제로 한 특강이 진행됐다.

지난 1991년 2월 문을 연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992년 4월부터 전주YWCA가 위탁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지난 30년의 운영 기간 동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업 △학교폭력예방 및 진로탐색사업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안전망(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사

업 △찾아가는 상담전문가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학교폭력 청소년지원센터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전담상담사 배치사업 등 전주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 데 앞장섰다.

정혜선 센터장은 "청소년안전망 활성화 보고대회를 계기로 30세 청년으로 성장한 센터가 사명감, 전문성, 성장, 연대라는 핵심가치를 세우고 지속가능한 센터를 향해 뚜벅뚜벅 나아가겠다"며 "기념특강을 통해 불안·우울에서 벗어나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들이 마음의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 김철현 과장, 대통령 표창

### 재난예방 관리 기여 공로 인정받아 수상

김철현 전주시 시민안전담당관(55)이 '제29회 방재의 날'을 맞아 지난 25일 재난피해 사전예방과 국가예산의 확보, 예방관리 분야 역량 강화에 기여한 공로 및 성과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재난에 이르기까지 각종 재난으로부터 소중한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더 안전한 '국제안전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 힘써왔다.

특히 '전주시 안전관리계획 및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을 재난 상황에 맞도록 정비하는 등 전주시의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과 각종 재난예방사업 등을 중점 추진한 점이 높이 평가 받았다.

김철현 시민안전담당관은 "대통령 표창은 재난안전관리를 위해 정말로 반납하고 한미음으로 함께 열심히 일해 준 동료들 덕분"이라며 "사랑하는 가족 및 최근 세상을 떠난 어머니와 우리 동료들과 함께 대통령 표창 수상의 영광을 나누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윤상 기자

## “모두의 미래를 위해 미리 투표하세요”

### 민주 우범기 전주시장 후보, 사전투표 참여 독려

더불어민주당 우범기 전주시장 후보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미리 투표해달라"며 27일~28일 양일 실시되는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우 후보는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6일 "선거가 불과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전주대변역의 기회를 잡느냐, 놓치느냐는 결국 투표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시민 한 분이라도 더 많이 사전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전투표는 유권자의 거주지와 무관하게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가능하며 당일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반드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우 후보는 "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시민들과 SNS, 블로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이번 선거를 통해 유권자의 책임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에 꼭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우 후보는 또 투표 전 각 가정에 배달된 선거공보물도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다. 앞서 우 후보는 자신의 기재부 공직



생활과 예산전문가의 감정을 부각시키며 '강한경제 전주대변역'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대안방직 터, 종합경기장 개발 조속 추진 △전주역 명품환승센터 조성 △관광도시 전주 활성화 등 능동적인 개발 정책들을 발표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우 후보는 "전주발전을 염원하는 간절한 바람을 한 표 한 표 소중하게 행사해달라"며 "전주엔 해야 할 일이 많다. 시민들께서 사전투표를 통해 우범기가 일할 기회를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김윤상 기자

## “위기청소년 살뜰히 챙기겠다”

### 국힘 김경민 전주시장 후보, '청소년지원책 마련'

국민의힘 김경민 전주시장 후보는 26일 "청소년들은 자산이자, 미래"라며 "위기청소년과 소년교화시설에 대한 청소년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후보는 정책 발표를 통해 "전주시 학생들의 학력저하의 문제는 교육계가 해결할 문제이지만, 교육 이외의 실리적, 경제적 어려움은 고스란히 행정의 뒷받침이 없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후보는 "전주시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비롯한 10여개 기관단체의 역할이 여러 여건상 부족하고, 소년교화시설마저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에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 지원 △위기청소년 대상 및 선도대상 청소년 선정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실태 점검 및 활성화방안 △소년교화시설 확충 등의 문제를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삶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전주시가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윤상 기자

##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집중 단속

전주시는 오는 6월 말까지 약 한 달간 보릿대 등 맥류작물 부산물의 불법소각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단속반을 편성해 수시로 전주시 일원을 순찰하며 불법소각 농지를 점검하고, 불법소각 발견 시 과태료 처분 및 농민공익수당 미지급, 직불금 감액 등 패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가의 맥류작물 부산물

처리를 돕기 위해 토지주 환원하기 위한 원관까지 9대를 지원했으며, 토지주 환원하는 농가들에게 1ha당 20만 원씩 지원하는 '영농부산물 퇴치지원 인센티브 지원사업'도 실시한다.

박용자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동안 농민들은 맥류작물 부산물을 관행처럼 소각하고 다음 벼농사를 준비해왔다"면서 "올해부터는 토지환원을 위한 장비 지원과 지원금으로 농민들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만큼 불법소각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